

모더니즘의 건축시대

광복 후 곧이어 엄습하는 정치적 혼돈과 한국동란을 겪는 50년대를 벗어나고, 수복 서울은 모든 것을 새로이 시작한다. 건축계에 있어서도 1950년대 전반의 시기가 무위의 시간이라고 하였던 바에 비해, 50년대 후반은 어느정도 문화적 비전을 찾게 된다. 비록 제한적이지만 전체의 복구사업과 도시 재건에 여유를 돌리게 되는 것이다. 물론 경제는 미국과 유엔의 원조에 절대 의존적이며, 정치 역시 순탄하지가 않아 60년대의 군사정부를 불가피하게 하지만, 문화의 인식이 어느정도 대중과 전문영역에 스미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서울은 그의 재건을 서두르며 당시의 중견 건축가들이 사무소의 개설을 서두르게 된다.

서울의 지리적 경계가 아직은 4대문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황이기도 하였지만, 건축계의 코어를 이루는 것과 같이 건축사무소들은 종로1가에 집중되어 있었다. 1953년에는 李天承과 金正秀에 의해, 해방후 건축사무소로서는 가장 견실한 구조로, 「종합건축」이 설립된 바 있다. 이와 같이 중견 건축가들의 협동체제로서 사무소의 구성은 큰 강점을 가져 대형 프로젝트는 상당한 기간 동안 「종합건축」에 독점되다시피 하였다.

한국의 건축가—정인국(2)

Korean Architect, Cheong In-Kuk
학자 건축가 정인국

박길룡 / 국민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by Park Kil-Ryong

1. 모더니즘의 시대인

정인국이 갖는 한국 건축에서의 가치, 이북에서의 소년기, 일본 유학기, 넓은 합리적 사고와 깊은 정서의 세계

2. 학자 건축가 정인국

홍익대학교에서 건축 교육, 신건축문화연구소, 모더니즘의 시기, 강명구·엄덕문·김중업과의 조우, 건축가협회장

3. 정인국의 지적 중흥기

한국적 모더니즘의 변이, 제3세대, 제3세계 건축에 주목함, 강의실에서 만남, 서양건축사·근대건축론·현대건축론에서의 시대관

4. 한국성의 모색

민족박물관의 교환, 문화재 위원, 한국 건축 원형의 연구, 박사학위 논문「한국목조건축양식론」

5. 정인국 건축의 궁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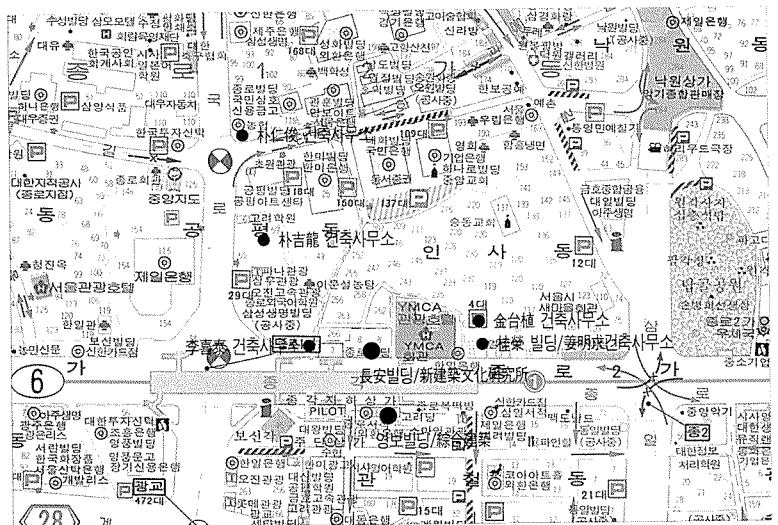
한국건축의 국제화를 위한 노력, UIA 총회, 정인국이 궁극적으로 도모하고자 한 것, 병환

신건축문화 연구소

1954년에는 다른 하나의 중견건축가 그룹인 [신건축문화연구소]가 서울시 종로구 장안빌딩 3층에 설립되었다.

鄭寅國은 嚴德紋, 金熙春, 裴基濤와 함께 이 사무소 작업의 중심이 되며, 구조에는 金昌集, 咸性權과 협동하였다. 설계진은 元正洙, 李允衡, 劉熙俊, 朱京在 등으로 구성되는 집단체제이다. 소장의 명의로 정인국이 하고 있었으며, 인하공과대학 기계공학과(1955), 공군사관학교(1955), 홍익대학 본관(1957), 서울 중부시장(1958), 충주비료공장주택(1959), 미우만 백화점(1959), 국립중앙관상대(1960) 등이 이 사무소의 이름으로 발표되었다. 1957년 5월 4일 장안빌딩 21개 사무실 소실되고 말았다. 그해 「신건축문화연구소」의 체계는 몇개의 개별적 조직으로 분화된다. 공동적인 운영의 어려움이 있으며, 구성원들의 강한 개성은 정인국, 엄덕문, 김희춘, 김창집, 배기형 등은 그 이후의 개별화된 판도를 만드는 것이다.

배기형은 「構造社」로 독립하고, 함성권이 한양대학교로, 정인국, 엄덕문은 홍익대학으로 중심을 옮기게 된다.



서울, 종로 1-2가의 건축사무소 / 이지역은 한국 근대건축기에서부터 한국건축의 메카와 같이 대표적인 사무소들이 집단을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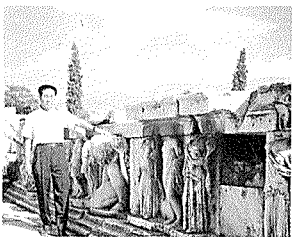
건축의 사회·교육·예술화 활동

홍익대학 미술학부 건축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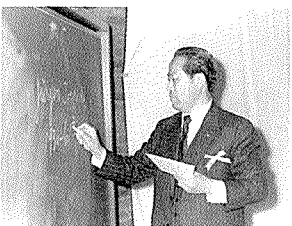
1946년 국립대학으로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의 해방 후 대학 교육을 시작하였다. 한국동란 중에서는 피난 수도 부산에서 명맥을 유지하다가 수복 후 공능 캠퍼스에서 교육을 재개하였다. 1949년에 漢陽대학교 건축공학과가 인가를 받고(1942년 東亞高等工科學院 설립, 1948년 한양공과대학), 1951년 全南대학교, 1952년에는 朝鮮대학의 공학부 건축과(1946년 光州夜間大學園으로 인가)가 개편되며, 1952년에는 嶺南대학교와 忠南대학교, 1953년 釜山대학교 등에 건축과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1954년에는 홍익대학교가 건축미술과를 설립한다.

홍익대학은 처음 서양학과, 동양학과, 조각과의 미술학부로 출발한다. 홍익대학이 미술학부 안에 건축미술과를 설립하게 되는 것은 당시 홍익대학의 조가가 尹孝重 교수가 가졌던 건축예술에 대한 개념과 역할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 처음 건축학과의 구성을 맡게된 엄덕문은 이미 평양대학에서 교수직의 경험이 있던 정인국을 초치하고, 미술대학의 체계에서 학과의 내용을 갖추고 교육을 시작한다. 이때까지 정인국은 대한중석 공무부 상동지사에 재직하고 있었다. 그 이듬해에는 미국에서 돌아온 강명구가 합세하고 김창집이 구조부문을 맡았다. 이즈음 정인국 교수는 홍익대학 건축학부의 교육적 개념을 크게 7가지로 정리하여 소개한다.

1. 창조하는 역군의 발굴
2. 선진 외국의 우수한 건축과 한국 건축에 관한 세밀한 지식의 전수
3. 건축을 구성하는 기능과 조형, 기술과 표현, 전반에 걸친 훈련
4. 건축설계 과제와 의장연습을 강조하는 연마 프로그램
5. 교내전과 국제전 출품을 통한 학생 상호간의 협동과 자율 정신 배양
6. 종합예술로서 건축을 위한 자매 예술인 회화, 조각, 공예 등 타학과와의 유대
7. 도시계획과 실내외장의 이수



그리스의 역사현장에서 정인국 교수/1960



강의실에서의 정인국 교수



서울에 정착한 후 정인국교수의 가족/1955년 우이동

그는 위와 같은 건축교육의 이상을 '건축 기술보다 조형예술-새로운 공간, 새로운 이미지' 라는 표제에서 전갈하고 있었다.¹⁾

현재의 건축교육 제도와 내용은 일체의 잔재를 답습하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나라 건축가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하였다. 그는 건축이 기술로부터 왜 독립되어야 하며 조형예술로서 인식이 필요한가를 설파하였다. 그것이 보다 총체적인 학문의 뜻이기 때문에 하바드가 대학원에만 건축과정을 두는 뜻을 말하였다. 이와 같은 교육 목표는 그 커리큘럼의 구성에서 실천의 모습을 보인다.

홍익대학교 建築美術學科 교과과정 (1958년 까지)²⁾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과목명	학점	과목명	학점	과목명	학점	과목명	학점
필수과목	제도	4	제도	8	제도	10	설계제도	12
			도학	4				
			건축계획A	4	건축계획B	2	계획각론	2
			의장연습	4	의장연습	6	의장연습	2
			형태색채학	2	도시계획	2	의장론	2
			실기	2				
			서양건축사	4	서양건축사	4	동양건축사	2
			서양미술사	4	서양건축사연습	2		
			문화사	4			근대건축론	2
			구조역학	4	일반구조법	4	구조역학	4
선택과목			건축구조학	4	구조론	4	철골구조학	4
			건축재료학	4	架構論	4	설비	4
					철근콘크리트	4	시공학	4
					구조학	4		
					외서강독	4		
			국어	6				
			영어	8				
			독어	2				
			국사	4				
			철학	4				
		자연과학개론	4					
선택과목	체육	2	체육	2	일반구조	4	동양미술사상	2
	문학개론	2			조경학	4		
	의장연습	4			건축재료	4		
	체육	2			계획원론	2		
				공예사	4			

1) 홍대학보 /건축학부 소개 /요약

2) 한국현대건축총람/1995/한국건축가협회



1965년도 서울시문화상 시상/정교수의 뒷자리가 부인 安載淳 여사

위의 구성 내용을 보면, 우선 1학년 신입생부터 건축의 문화적 인식을 체득케 하고자 서양미술사, 문화사, 서양건축사를 만나게 한다. 2학년부터는 이미 강도높은 디자인 과목의 이수를 기하고 있다. 서양건축사와 서양건축사연습은 일견 보.자르 교육의 단면을 보이며, 외장 연습 외에 형태.색채학을 독립시켜 필수로 이수하게 하였다. 상대적으로 구조 및 건축기술과목의 제한이 뒤따르나, 구조, 재료, 설비, 시공의 고른 교육체계를 벗어나지는 않고 있다. 또한 필수과목의 비중이 큰데 비해, 선택과목의 여유가 비교적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선택과목에서도 외장연습, 공예사, 동양미술사상을 포함시켜 당시 홍익대학의 디자인 지향의 교육 개념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를 알게 한다.

1955년의 홍익대학 건축미술과 제1회 전시회가 주택 전으로 장안빌딩에서 개최되는데 주로 소형 주택계획의 내용이었다. 이 전시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전시회로 기록된다. 매년 6월에 열리던 이 전시회는 전년도에 신입생을 받은지 1년 반만의 일로 건축학과 2학년생들이 중심이 되는 것이다. 정인국, 엄덕문 교수의 지도로서 건축교육의 디자인 지향성을 당시의 건축교육계와 공공에게 전하는 것이었다. 최초의 건축전시회인 만큼 지도교수의 노력도 각별하였고, 1:5 모형을 중심으로 한 작품은 내장 목수의 협조를 받아야 할 만큼 적극적인 입체적 전시기법이였다. 미술대학 교수들도 벽화를 그려준다든지, 조각을 장식하여 주며 관심을 기울였다. 홍익대학의 교육체계 중 또하나 특징은 그 후 설치되는 도시계획과의 연계이다. 도시계획과는 주로 朴柄柱 교수에 의해 주도되며, 羅相紀 교수가 건축과 도시의 두 영역을 잘 연계시킨다. 정인국 교수가 건축 영역에 도시를 포섭하는 것은 후배인 나상기 교수가 도시계획으로 연구를 전향하는데 영향을 주며, 그 후 그를 홍익대학의 교육.연구체계에서 연계매체가 되게 하였다.

1970년대까지 홍익대학 건축학과의 졸업전은 도시계획학과와 협동전시회의 내용을 자주 가졌다. 정인국 교수는 건축학회와는 관계가 열었는데 비해 비교적 건축

가협회에는 깊이 개입되어 간다. 그것은 아마 건축학계의 폐쇄적인 아집보다는 건축가 집단의 이기성이 더 건디기 쉬웠는지 모른다.

韓國建築作家協會 창설과 건축의 예술화 운동

1957년에는 현재의 「韓國建築家協會」의 전신인 「韓國建築作家協會」가 창설된다. 창립회원은 李天承, 鄭寅國, 金熙春, 金台植, 裴基滢, 姜明求, 嚴德紋, 金正秀, 朴學在, 金重業, 洪淳五, 羅相振, 李喜泰, 李明徽의 14명이였다. 이에 앞서 1950년에 창설된 大韓建築學會가 건축의 학술과 기술 계발의 역할이었던데 비해, 건축작가협회는 건축의 예술지향적 개념을 천명하는 양태를 볼 수 있다.

즉 建築人의 時代的. 社會的 共同意識의 形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국가사회를 위한 문화적 사명감과 건축인의 권익 수호를 위한 기구의 필요성이 절감되어, '時代에서 建築家의 役割과 진로의 모색, 國際交流와 時代的 思潮의 形成, 建築人 相互 親睦 圖謀'가 목적이라 하였다.

이 「韓國建築作家協會」라는 명칭은 1959년 2월 제3회 정기총회에서 「韓國建築家協會」로 개칭되는데, 이때까지의 회장직은 李天承이 맡게 된다.

초대회장 이천승에서부터 2대 김윤기(1959-60), 3대 김재철(1960-64)에 이르며 정인국은 3대부터 부회장을 지낸다. 그러서는 1962년에서 1965년 까지의 일이다.³⁾

1962-64년 부회장이던 김희춘은 다음 4대인 1964-66년에 회장으로 추대되고, 정인국은 부회장을 연임한다. 건축가협회는 이때부터 부회장직을 지낸 사람에서 다음 대의 회장을 천거하는 것이 관례이었다. 그러나 1966년부터 정인국은 1974년에 회장으로 추대될 때 까지 약 10년간 건축가협회와 소원(疏遠)해지는 일이 생긴다. 건축가협회의 출범과 함께 건축의 예술화 기운은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 건축부를 신설하는 일에서 대중적 접근을 앞당기게 되었다.



홍익대학교 본관/서울/1957/전체적으로 횡적인 비례 속에 현관을 중심으로하는 대칭이 이루어진다. 다시 1층의 필로티가 깊은 음영을 만들어, 2층 이상의 몸체를 가볍게 들어올린다.

3) 한국 건축가협회 역대 회장단

대	임기	회장	부회장
1	1957-59	李天承	
2	1959-60	金允基	
3	1960-62	金在哲	
	1962-64	金在哲	鄭寅國, 金熙春
4	1964-65	金熙春	鄭寅國, 宋攷求
5	1965-66	宋攷求	裴基滢, 李東鎮
	1966-68	宋攷求	裴基滢, 金東珪
6	1968-70	裴基滢	姜明求, 金重業
7	1970-72	嚴德紋	金台植, 羅相振
8	1972-74	崔昌奎	金壽根, 韓鼎燮
9	1974-76	鄭寅國	韓鼎燮, 李海成
10	1976-78	金壽根	韓鼎燮, 李海成
11	1978-80	韓鼎燮	李海成, 李丞雨

건축의 예술지향적인 의지를 갖는 여러 건축가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전에 건축부 설립을 주장하고 주관 처인 미술협회의 협조를 구하였다.⁴⁾

마침 사진도 한국미협을 통하여 국전 가입 운동을 하고 있던 때이므로 이 두 분야는 회의 때마다 경쟁하게 되었다. 사회적인 인식에서 건축이 예술로 인정받기에는 열악한 형편이었고, 예총의 회의 분위기에서도 건축은 '청부업자의 일'로 비하되는 일조차 있었다.⁵⁾

건축가협회가 결성되기 이전, 건축계의 유일한 단체인 건축학회의 분위기는 기술분야에 기울어져 있었다. 당시로서 건축은 대한미술협회의 한 분과로 가입하고 협조를 구하는 길밖에 없었다. 여기에서는 尹孝重, 金煥基의 힘입은 바가 크다.⁶⁾

그리고 이들은 홍익대학에 미술학부에 건축과를 신설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과정을 겪어 제 4회 1955년 대한민국미술전람회부터 건축부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당시의 大韓美協의 임원은 위원장에 都相鳳, 부위원장에 李鍾禹, 金仁承이 맡았다. 상임위원은 金煥基, 李馬銅, 李應魯, 尹孝重, 姜明求, 李天承, 李完奭, 李鳳商 등이었고, 위원으로는 朴商玉, 金景承, 李惟太, 金正炫, 千鏡子, 朴魯壽, 孫應星, 李俊, 金在奭, 嚴德紋, 朴學在, 鄭寅國이 있었다. 건축은 기술과 산업의 가치에 예술적 의미를 중첩시키는, 매우 늦었지만 쉽지 않은 일을 시작하는 것이다. 大韓民國美術展覽會에 건축부가 신설되어 왔으나 官 주도의 행사이므로 건축예술의 사회화 활동에는 제한이 따를 수 밖에 없었다. 순수 민간단체인 건축가협회 자체의 활동을 모색하던 중 1962년 12월 건축가협회 주최로 「現代建築作家展」을 열게되었다. 당시 김재철회장과 정인국, 김희춘부회장을 비롯한 건축인의 노력으로 회원작품부, 신인공모부, 해외작품부로 구성하였다. 이 행사는 이후 1982년도 건축가협회가 「대한민국건축대전」을 주최하며 건축대전의 초대작가부와 중북을 피하기 위하여 16회를 계속하고 중단된다. 여기에서는 매년 회원들의 작품과 함께 외국의 현대건축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서울 수복 후 건축계의 새로운 사회정비를 기하며 정인국 교수의 사회성도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갔다. 이러한 건축의 교육과 사회활동의 한편 그의 건축개념은 철저한 합리주의를 천착(穿鑿)하고 있었다. 그러한 합리주의 사고는 최소한 60년대 초까지 한국건축 전체를 지배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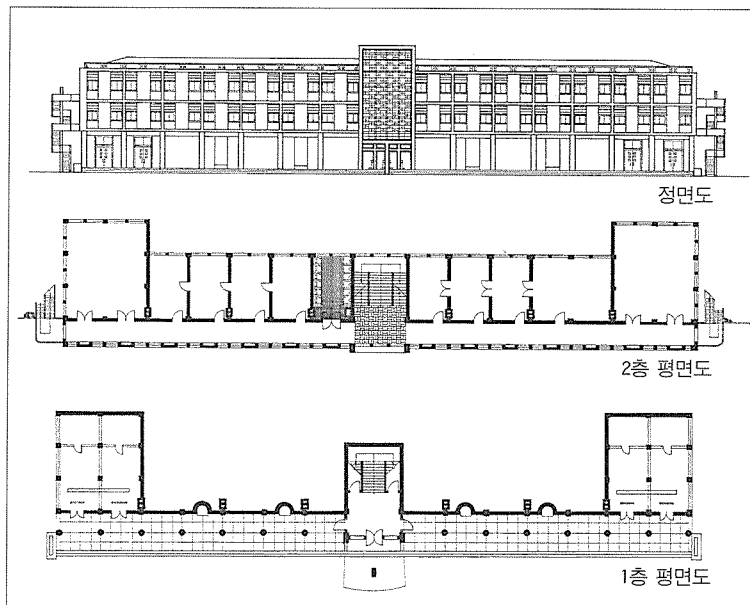
합리주의의 건축 시대

정인국은 1954년 大韓重石會社을 퇴임하고, 홍익대학교 교수직으로 서울에 올라와 안착한다. 1955에는 仁荷工科大学 建設 책임을 맡으며, 仁荷工大 機械工學館(인천/1954), 仁荷工科大学 寄宿舍(인천/1955)를 설계한다. 인하대학교와 공군사관학교와 같은 교사건축은 그 기능적 속성 때문에 합리적이다. 인하공과대학 기계공학관은 알미늄 루버와 블록에 의한 그릴을 형태요소로 구사하므로서 합리적인 구성 속에 절제된 수사를 유지한다. 특히 조각가 尹孝重의 브론즈 작품이 정면에 제시된 벽면을 장식케 하는 것은 그의 건축적 정서를 크게 돕는다. 이러한 기법은 홍익대학 본관에서도 나타난다. 空軍本部廳舍(서울/1955), 空軍士官學校(서울/1955)는 신건축에서의 작업이 된다. 공군본부 주최로 1955년에 실시된 공군본부 청사 건축설계도안 현상은 지명현상으로서 수복 후 처음 실현을 본 현상경이였다. 5개의 응모작품 중 김정수, 이천승(종합건축)의 안이 당선되고, 2등-정인국, 가작-엄덕문, 강명구, 이광노의 작품을 선정하였으나, 정인국, 엄덕문, 김희춘(신건축)에 의해 실시되었다. 실시된 건축은 철근콘크리트조로 3층 건물에 연 3,398평의 규모를 횡으로 확장한 합리주의의 조형이였다. 이 프로젝트는 당시로서 매우 규모있고, 비중한 작업이였다.

홍익대학교 본관(서울/1957)

이 교사는 홍익대학교 초창기에 건립되어 본관 및 교실 기능을 담았다. 백색의 단아한 조형 속에 1층부에 회랑을 갖는다. 주간마다 알코브 스페이스와 벽조각을 갖는 이 회랑공간은 서향이므로 오후의 햇살을 받으면 그림자가 정적을 만든다. 전체의 평면은 중앙계단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며 편복도 형식으로 횡적 비례를 취하였다. 수평성에 펠로티가 만드는 그림자의 리듬, 적절한 장식성이 유지되나 관능의 절제가 단아한 품격을 이룬다. 이 홍익대학 본관에 이르는 정인국 교수의 조형은 낭만적 기미를 내포하면서도 뚜렷한 합리주의 경향이 다. 대체로 건축의 표현은 무조적이지 않으나, 매우 확

실한 기능적 순응에서 이루어진다. 물론 당시로서의 구조, 재료, 그리고 건축의 기술적 한계가 기본적으로 건축성을 제한하였을 것이나, 여기에 건축적 품격을 흐트러트리지 않고 온화한 낭만성과 합리성의 의사를 긍정



홍익대학교

- 4) 특히 문충 상무이사였던 엄덕문과 강명구 등은 이 문제에 큰 집념을 보인다.
- 5) 특히, 고희동
- 6) 尹一柱 / 한국현대미술사(건축) / 1978 / 국립현대미술관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합리주의 의사는 국립중앙관 상대(서울 /1959-60) 이후 직접적인 국제주의 경향으로 이어진다. 1960년대 세계 건축의 상황은 이미 국제주의 경향에서 이탈하여 지역적 표현에 몰두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한국건축이 국제주의로부터 이탈을 주저하고 있는 것은 정인국 교수 자신이 극명하게 비평하던 상황이다. 그러나 이즈음까지 그 자신 역시 사고와 실천 간에 모순을 보인다.

국립중앙관상대 /기상청(서울 /1959-60)

60년대 초의 기능주의 건축으로서 국제주의의 스타일의 전형을 보인다. 내부 거터에서 내민 슬라브 사이에 유리와 커튼월을 삽입해 전체적으로 3층의 메스가 유리상자로 정갈하게 정리되었다. 지하층을 들어올리고 유리블럭을 써서 지하의 채광을 해결하는 전체의 경량감을 더한다. 상자곽의 본체에 독립적인 전면계단과 옆의 수직 캔틸레버 계단이 부가되는 것도 그러한 순수하고도 단순한 주제를 강조하고자 함이다. 내부 공간은 가운데가 오픈된 홀을 중심으로 4면에 기능실들을 배치하여 전체적으로 밝고 가벼운 공간감을 얻는다.

조흥은행 본점(서울 /1963-66)

조흥은행 본점(서울 /1963-66)은 이천승, 강명구, 김중업, 박춘명, 유영근의 합작이나, 정인국 교수로서는 국제주의를 정리하는 작업이 된다. 유영근씨는 건설 본부를 맡고 있었으나, 나머지 5인의 건축가의 합작이라는 형식은 작가들의 이상이 합치되는 공유체로 보기 어렵다. 어떻게 보면 유명한 5인방이 어떤 뚜렷한 전략 없이 모인 모양을 보인다. 그리고 본점의 화재로 바쁜 상황에서 설계기간도 매우 촉박하였다. 이러한 작업조건에서도 유니버설하게 건축의 표현이 흐르게 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조흥은행 본점은 다분히 레버하우스와 같은 조형이다. 다만 이 작품은 저층부의 중량감과 고층부의 경량감을 대립시키는데에서 구분된다.

당시 건축기술의 환경에서는 새로운 알미늄 커튼월이 외피에 구사되는데, 원시적인 공정으로나마 東洋鐵鋼工業株式會社가 미국 ALCOA사와의 기술제휴로 착색 알미늄 쉬트를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표면처리의 기술적 어려움이 극복되지 못하여 균질한 색상을 만들지 못하였으나, 유리와 알미늄 스펀드럴의 커튼 월은 당시 광고 - 을지로 입구 일대가 참신한 타운 스케이프를 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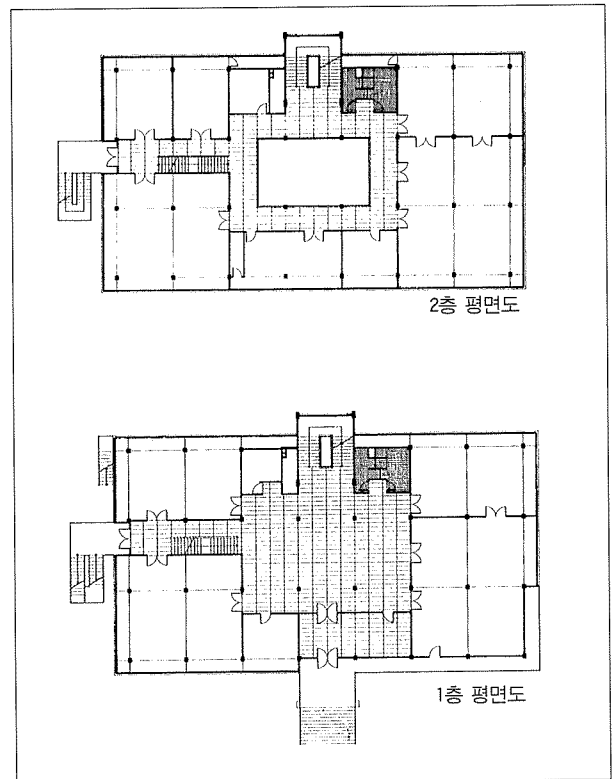
국립중앙관상대/서울/1959-60/합리주의의 조형 속에 커튼월의 단순미가 형성된다.

게 하였다. 보행자 레벨에서 시각되는 저층부의 구성이 특별하다. 이 건축은 청계천로 측의 가각에 위치하는 특성 때문에 서울 도심의 중요한 비스타가 된다. 건축의 배치는 저층부를 직교하지 않는 도로선에 따르면서 도시공간의 질서를 잡아준다. 고층부의 단조로운 메스로서 시각과는 달리 친화력있는 요소들을 근접 시각에 마련하고 있다. 이는 가벼운 유리의 박스를 엮게되는 화강석을 주조로 한 기단의 역할과 같은 것이다. 고층부는 단순한 입방체로서 평면은 철골.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6×7.2m의 기둥 배치로서 당시 구조성의 한계를 보인다.

이와 같은 국제주의의 과급은, 당시의 한국건축계가 보편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일제시대 말기에 양식적 건축에서 합리주의로 전이되던 경험(상공장려관 /서울 /1929, 적십자사 경성지부 /서울 /1933, 丁字屋 /서울 /1937, 旭빌딩 /서울 /1938 등)에 연속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금속제 커튼 월은 새로운 모던문화에 절대적인 수단이 되었다. 정인국은 그외에도 미우만 백화점(서울 /1959 /신건축문화연구소)을 커튼 월로 수직적 조형을 이루며, 강명구는 조적조에 목조 Joist를 쓸 망정 그의 표장은 커튼 월을 구사하여 계영빌딩(서울 /1954)을 만들었다. 신신백화점(1956 /종합건축), 우남회관(1957 /종합건축), 국제극장(1957 /종합건축), 성모병원(1958 /종합건축), YMCA중앙회관(1960 /종합건축) 등은 최소한 60년대까지 시대를 지배하던 조형 수단이었다.

1958에는 국회의사당이 남산의 이승만박사 동상 주변으로 대지가 선정되고, 현상설계가 개회되었다. 정인국은 심사를 맡는데 여기에서 朴春鳴, 金壽根, 康炳基라는 신 일본유학파의 건축가들을 불러들이게 되는 동기가



국립중앙관상대

이루어지는 것이다.⁷⁾

그리고 분명히 이 프로젝트는 당시의 한국건축이 당면한 건축의 시대성을 객관적으로 보게 하였다. 1960년 11월 UNESCO 「國際造形藝術協會」 국제총회(오스트리아 비엔나)에 鄭寅國, 姜明求가 화가, 조각가와 한국 대표로 참석하였다.⁸⁾

이 총회의 주제는 '建築과 美術의 復活'로서 세계 건축계와 직접 조우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회의를 마친 후 정인국과 강명구는 프랑스, 영국, 암스텔담, 이태리, 그리스, 폴투갈, 뉴욕, 하와이 등을 답파하는 40일간의 구미건축 여행을 갖는다. 이북에서 월남한 정인국으로서 는 첫 歐美 建築 여행이다. 이 기회에서 정인국은 서구 건축의 정수를 목도하게 된다. 아마 서구 전통의 문화적 충격과 역동적으로 전이되어 가는 시대정신을 체험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 구미 여행의 체험은 그의 「서양건축사」(교육문화사 /1967)와 「근대건축론」(문운당 /1965)의 집필과 그의 제3시기인 낭만적 모더니즘의 시기에 직접 결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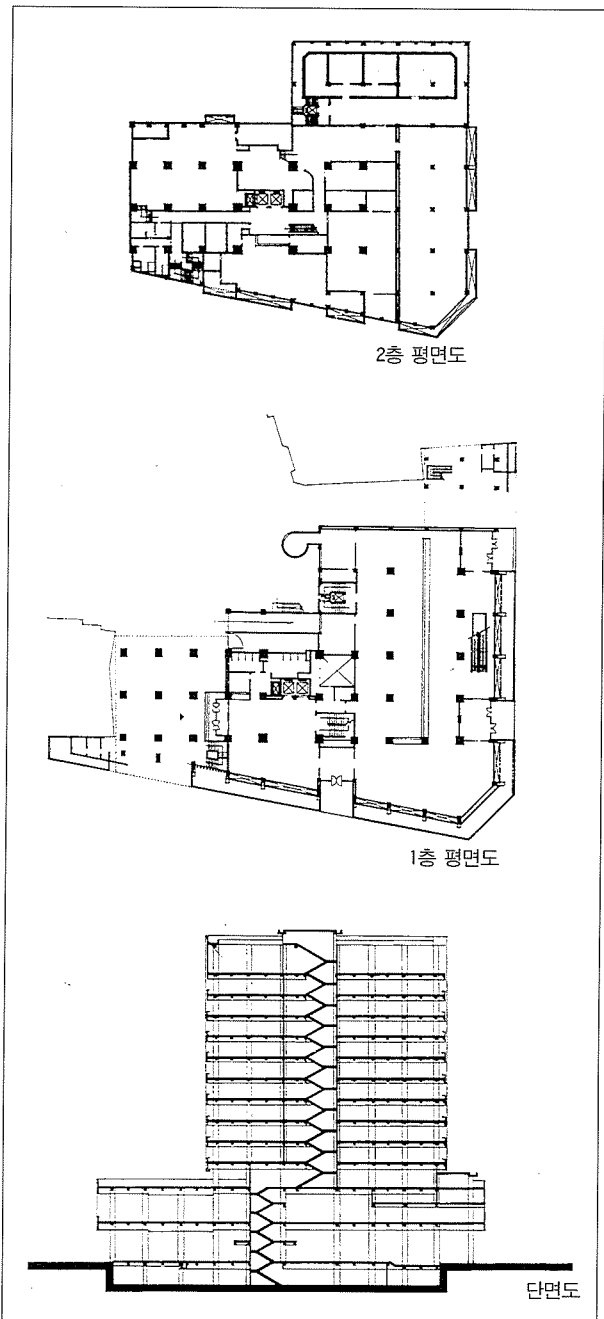
1963년 3월 대한건축학회에서 강연회가 개최되는데, 여기에서 정인국은 '建築樣式 發展의 週期性에 대하여'에 관한 주제로 강연한다.⁹⁾

이 정인국 교수의 '건축양식의 발전의 주기성과 이원성'이라는 명제는 벨프린의 사고에의 동조로 이해된다. 그는 강의실에서 고전과 바로크의 주기적 변동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는 곧 자신의 낭만적 경향에 들어섰음을 예고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60년대 후반까지 한국의 합리주의를 일탈하며 낭만적 기운으로 기울어져 간다. 이러한 그의 변이(變移) 상황은 다음 1970년대에서, 그의 건축적 황금기로 기술하게 할 것이다.

- 7) 당선작 朴春鳴+金壽根+康炳基+鄭炯+鄭鍾泰
 심사위원 : 金允基, 李天承, 金舜可, 李榮來, 金重業, 辛무성, 洪鵬義, 鄭寅國, 姜明求, 金極寅
 8) 姜明求, 30년 沿革 /他文化와의 관계, (建築), 1975.8.
 9) 장소: 국립과학관, 주제 '근대건축의 동향에 대하여(劉惠鎬)', F.L.Wright의 작품과 사상에 대하여(尹張燮), '건축양식 발전의 주기성에 대하여(鄭寅國)', '현대건축 소론(金正秀)'



조흥은행 본점/서울/이전승+정인국+김중업+박춘명+유영근+조흥은행신축본부/1963-66/경량의 고층부가 대립적 효과를 도모한다.



조흥은행 본점